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의 오만함 심판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당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자꾸 말이 잇 나와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칭찬 받으요? (ID:착한아이)

좋은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사람이 '착하다'는 기준은 참 여러 가지예요.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착한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은걸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실천만 하면 되겠지요.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여러 설명 보다는 때로는 시 한 편이 더 다가온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알아주기 전에 먼저 상대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정당한 청을 거절할 때도 자신은 상대의 정당한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여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에게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주는 사람입니다.

(중략)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생각하고 살려는 마음이며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과 봉사로서 심지어는 자신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비룡경사 혜진님)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도스토예프스키 작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는 <가난한 사람들>(1846년)로 혜성처럼 나타나 1866년 <죄와 벌>을 발표하게 되죠. 그의 창작세계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볼 수 있어요. 전기의 창작은 감성적 낭만주의적이었는데 페트라세프스키 사건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세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죠.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창작은 당대 구체적인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는 리얼리즘적인 작품을 썼어요. <죄와 벌>은 리얼리즘의 후기 대표작이죠.

주인공인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서구적인 합리주의자이며 무신론자. 그는 빈곤과 고뇌에 허덕이며, 그의 좁은 하숙방에서 추상적 사색에 몰두한다. 그는 고독한 사색 끝에 드디어 그 나름의 초인사상을 체계화한다. "누가 나폴레옹의 살인죄를 물었는가? 나폴레옹은 사상 최대의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위인으로 존경하지 않는가. 그것은 나폴레옹이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는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할 생각을 품는다. 즉, 자기는 비범인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고리대금

업자인 노파를 살해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와 여동생을 도끼로 살해한다. 그러나 그는 범행 직후부터 낮과 밤을 악몽처럼 보내며, 양심의 가책과 고민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고민은 논리와 의지가 명령한 논리적 의지와 인간의 내부에 도사린 선과 악, 정의와 정신적 의지와의 충돌에서 생기는 투쟁이었다. 그는 심각한 고민과 회의를 거듭한 끝에 자기는 무가치한 범인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

작가의 후기 리얼리즘 대표 소설 선·악이 공존하는 심리묘사 탁월

는 비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은 성스러운 매춘부 소나의 끈질긴 권유를 받고 자수하기로 결정. 그 후 시베리아에 유형된다.

<죄와 벌>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부채를 갚기 위해 쓴 불후의 사상 소설이죠. 작자가 이 소설을 쓸 당시, 러시아에서는 <시저의 역사>(1864년)라는 책이 널리 유포되었죠. "사회적 부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허용 된다"는 허무주의적 초인사상이 한창 유행했었죠. 이 작품의 주인공도 초인사상의 소유자로, 범인은 기성의 도덕과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비범인은 그러한 도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범행 후 그는 미

칠 듯한 고독감과 강박관념에 그만 굴복당하고 마는데, 이는 바로 당시 사회사상에 희생의 의미를 미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이 작품의 큰 테마는 살해범이 자기의 본질적인 오해에 의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본질을 실험하려고 했던, 주인공의 오만함이 죄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상을 엿볼 수 있지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체적 특징은 폴리포니컬이라 말하는데 주인공이나 부수적 인물이나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다성 음악적 구조처럼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골고루 드러나는 작품의 성격을 말하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자기 부정을 하던 주인공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단 한사람의 대상이 바로 창녀인 '소나' 이죠. 이 작품에서 소나는 복음서적인 사랑과 인종의 사도이며, 무신론자 라스콜리니코프에 대립되는 구원의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지 숭배사상을 가진 범살라브주의적 신앙경향을 알 수 있죠. 에펠로그에서 그녀의 감화에 의한 주인공의 종교적 갱생과 정신적 부활이 그려지고 있으나, 이 부분은 예술적인 박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죠. 이에 반해 합리적인 원리와 비합리적인 원리 사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에 직면한 주인공의 심각한 고민은 투철한 심리분석과 극적인 박진력을 보여줍니다.

인명옥(서인·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문학은 세상의 거울이기도 하고 인간의 거울이기도 하지요. 문학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삶의 교훈과 지혜를 주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어휘력이나 상상력이나 사유하는 힘도 문학작품을 통해서 얻어지지요. 우리의 아름다운 말들도 갖고 닦아나가는데 문학작품이 최고지요. 가을은 책을 읽는 계절이라고 하지요. 요즘이야 독서가 필수가 되어 사계절 내내 읽어야 하지만요.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수리: 물건 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돈. (우수리는 받지 않을 테니 물건이나 좋은 것으로 주세요.) 또 일정한 수나 수량에 차고 남는 수나 수량을 의미해요. (조카에게 이십만 원을 일 할로 얻어 쓸 터이니, 우수리 만큼 원만 현금으로 내놓고, 표를 한 장 써내라는 것이다.) <염상섭, 두 파산>

인두검: 사람의 형상이나 탈. (가난이란 게 사람에게서 오르지 인두검만 남게 놓고 모든 사람다움을 얼마만큼 살살이 짓밟는다는 걸 모를 테니까.) <박완서, 도시의 흥년> 관용적으로 '인두검을 쓰다'라고 하면, 겉으로만 사람의 형상을 하였다는 뜻으로, 형상이나 바탕이 사람답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에요. '인두검'은 '인'과 '두검'이 결합된 어형입니다. '두검'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을 뜻해요.

여리꾼: 상점 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 들여 물건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값을 받는 사람. (짜저는 김문현 이와 가마꾼이 하는 수작을 동상전 여러꾼처럼 비술비를 웃으며 노려 보고 있었다.) <송기숙, 녹두 장군>

인명옥(서인·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만으로 떠나는 천사(하영)(869)'
by. 경운조원

잠...잠깐, 사과는 왜 떨어지는 걸까?

모든 물체는 '관성'의 지배를 받는다.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20년 후 친구들과 우주의 운동법칙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모두를 고민하던 운동법칙은, 자신이 20년 전 발견했던 만유인력의 법칙이었습니다.

헤헤~ 세상의 위대한 지성들이 우주운동의 법칙을 찾고 있을 때, 뉴턴은 이미 오랜 전에 그 법칙을 알아버렸구나.

뭐? 2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풀었다고?

뉴턴의 만유인력이 발표되지 세상은 혼란했습니다. 뉴턴은 신을 증명하였다! 우주는 신의 섭리에 따라 알맞게 움직이는 것이다!

철학자 뉴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과학자와 철학자의 경계가 분명하지만, 근대까지 과학과 철학은 같은 학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음~ 햇빛 안에는 무지개가 숨어있어.

자연철학은 신의 섭리의 자연을 연구했고, 도덕철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둘을 같이 고민했는데.....

뉴턴은 철학적 명제를 과학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뉴턴 이후 자연철학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아이~ 머리 아파. 뭐야? 사과잡아!

동!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통)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 10월 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큰스님께서는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총복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운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